포스트 코로나, 불교 어떻게 변화할까

동국대 종학硏, '포스트 코로나'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됐고, 이로 인한 경제 · 산업 · 문화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대면하며 기도하던 기존의 종교의례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 · 예배로 대체할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1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 라는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만해관서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교 포교와 종교, 환경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제언 등을 담은 논문들이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발표 논문 '포스트 코로나, 불교 포교의 변환에 대한 소고' 를 통해 불교 포교와 신행이 시대에 맞게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시작된 유튜브 온라인 법회와 강좌들을 주목한 정운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불교가 부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신행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불교 유튜브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정운 스님이 꼽은 유튜브 모범 사례는 △서울 봉은사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고양 흥국사 △대구 대관음사 △오대산 사자암 △무여 스님 △원용 스님 △조계사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으로, 대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형 법회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었다. 연간 회원제 기도와 유튜브 멤버십을 활용하는 사찰도 있었다.



인경 스님 정운 스님 이병인 교수

'코로나' 관련 첫 불교계 학술행사

정운 스님, 유튜브 모범사례 분석

"시대 맞는 行法 개발해야" 강조

인경 스님 "구도형 종교 나아가야"

새로운 영성 운동 적극 수용 필요

시대에 맞는 불교의 행법(行法)을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스님은 △시대 코드에 맞는 현대적인 다르마 개발 △염불의 현대화 △간경 · 불서와의 만남 △기존 법회 형식 탈피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 스님은 "단순히 법석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법을 전달하는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특정한 법회를 제외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고, 찬불가를 부르는 콘서트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사찰은 멤버십 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고, 불자들은 사찰과 늘 연계된다는 연대감을 얻게 된다"며 "어려운 고비는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를 기회삼아 '불교 르네상스 시대' 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을 발표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종교들의 사회 참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인경 스님은 종교의 형태를 기도형과 구도형으로 구분했다. 스님에 따르면 기독교와 같이 절대자를 상정하고 이를 경배하는 의례를 진행하는 종교는 '기도형' 이며, 내면의 진리를 찾고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종교는 '구도형' 이다. 인경 스님은 앞으로의 종교가 '구도형'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인경 스님은 "종교의 본질은 명상과 힐링, 곧 영적 깨달음의 체험과 개인 · 사회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다. 오랜 시절부터 종교는 세상에 대해 성찰과 치유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역할에 대해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후 기존 종교는 새로운 영성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 을 통해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전통을 되살리는 '청정성 회복운동' 을 일으킬 것을 주장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발표자와 논평자만 현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청중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웹액스(Webex)로 접속해 미팅번호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종학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학술대회 자료집도 사전 발송되므로 연구소 메일(jonghak@dongguk.edu)로 자료집 수령 주소를 발송해야 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사회적 변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불교계에서 개최하는 선제적인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가불자 본분 다하는 신도회 만들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6 · 27대 회장 이 · 취임법회

"승보공양은 재가 불자 의무

행복바라미 사업 계승 · 발전"

"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가슴 속에 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대 회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6 · 27대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웅전 법당에는 50명만 참석했으며, 초과 인원은 외부에 마련된 좌석에서 중앙신도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재가불자들 각자 자리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현대사회는 극심한 경쟁으로 정신적 고통은 심화되고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류는 새로운 고통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이 시기에 신임 회장 덕산 주윤식 거사가 깊은 신심과 넓은 원력으로 전국 신도들을 일심으로 단합시켜 부처님 법에 따라 삼보를 외호하고 수분수력(隨分隨力)으로 정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주윤식 신임 회장은 그동안 교구신도회와 지역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신심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큰 역량을 발휘해 중임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종단은 언제나 신도회가 조계종 신도대의기구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격려사에서 "오늘 취임하는 주윤식 회장은 제8교구신도회장으로 다져온 '승보공양' 의 원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신행운동을 펼쳐달라"고 기대했다.

새로 취임한 주윤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대 회장단의 업적과 사업을 계승 · 발전시키고 '재가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 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한 주윤식 회장이 중앙신도회기를 이양받고 있다.

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나눔문화의 확산이라는 현재의 가치를 넘어 불교문화의 진흥 · 불교 인재의 발굴과 육성 · 불교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을 찾아 그들의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 서겠다. 또한 결집된 역량을 기반으로 '함께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 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법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윤식 회장은 행복바라미 사업의 발전과 함께 승보공양 등 신규 사업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승보공양 사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주윤식 회장은 제8교구신도회장을 역임하며, 매일 100원 씩 기부하는 '승보공양' 사업을 전개해 교구 승려 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한 첫 해 1억 2000여 만원을 모연했고, 3년 차에는 2억원을 모연하는 성과를 보였다.

주윤식 회장은 "큰 돈은 부자 한 명이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다. 매일 100원 씩 승보공양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스스로의 원력을 다지고, 스님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승보공양은 재가자의 의무다. 재가불자의 본분사에 최선을 다할 때 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 센터' 완공

10월 1일 양곤 지역에 건립

미얀마 사업 10년만에 결실

현지인 부지 기부로 본격화

두부공장 입점…883㎡ 규모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미얀마 지부가 양곤 지역에 센터를 완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밀착적인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미얀마센터 건립은 로터스월드가 미얀마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한지 꼭 10년만의 결실일 뿐 아니라, 해당 부지를 미얀마 현지인이 기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로터스월드는 최근 "지난 10월 1일 양곤 노스다공 지역에 미얀마 지부 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883㎡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진행한지 10개월 만인 10월 1일 최종적으로 완공됐다. 1층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설립,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두부공장과 교육장, 2층은 지부 사무실과 미팅룸, 교육장, 3층 · 4층은 게스트룸과 직원 숙소 등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가 양곤 지역에 센터를 완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밀착적인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사진은 새롭게 건립된 미얀마센터. 사진제공=로터스월드

해당 센터 건립이 미얀마 현지인의 부지 기부로 본격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지부 설립 10주년을 맞아 미얀마 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미얀마 현지인이 필요한 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 기부자는 2018년 양곤 지역내 자야스웨따웅 학교 신축지원과 식수상황이 열악한 미얀마 내 학교 등에 정수시설조성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온 로터스월드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센터는 그동안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진행해 온 교육환경개선사업(학교 및 도서관 신축), 위생환경개선사업(정수시설 조성)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미얀미 지부는 지난 10년간 사업규모가 매년 확대돼 왔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 두부공장의 경우 그 위치가 지부사무실과 멀어, 관리와 운영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번 지부 센터 신축을 통해 지부사무실과 사회적 기업인 두부공장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 재고와 기업 운영 확장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새롭게 설치된 교육장은 향후 미얀마 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한국어 · 영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기업 두부공장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농촌출신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기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숙소시설도 마련됐다.

센터가 건립된 노스다공(North Dagon)지역은 로터스월드 사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도 갖췄다. 로터스월드 측은 해당 지역이 학교환경개선사업과 정수시설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바고(Bago) 지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얀마 정부청사가 위치한 수도 네피도(Nay pyi taw)와의 접근성도 높아 내무부에 대한 사업보고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는 "이번 센터 준공을 계기로 미얀마 사회의 책임있는 국제NGO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얀마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수시모집 비대면으로 '성공'

동국대 서울캠 19.91 · 경주캠 4.22 경쟁률

종립대학들이 비대면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학 입학모집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동국대는 9월 28일 오후 5시 마감된 서울캠퍼스의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종 경쟁률이 19.91대 1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총 2049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에 4만786명이 지원, 최종 1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의 지난해 수시 지원은 20.56대 1이며, 2019년 수시지원은 18.01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지원자가 10.1% 감소하는 등 대학입학 지원자들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비대면 방식을 전격 도입한 실기전형 세부전형별 경쟁률은 △연극학부 72.50대 1 △영화영상학과 85.25대 1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가 57.52대 1 등을 기록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1천454명 모집에 6천136명이 지원해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5대 1의 경쟁률이었다.

동국대의 경우 올해 수시모집은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기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류전형에서 평가산정 기한도 대폭 넓혔다. 면접과 실기 전형은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호월서재단, 지역 위한 자비나눔 잇달아

추석 앞두고 마포구 성금 전달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9월 28일 서울 공덕동주민센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마포구청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법주사 조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호월서희망재단은 국내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매월 2차례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미얀마 쉐띳마을 중학교에 장학금과 지원금 1만달러를 보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세대공감 이끄는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10월 21~24일 서울극장 등

국내외 작품 55편 상영예정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세대간 소통을 이끌어온 서울노인영화제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극장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희유)는 10월 7일 서울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노인영화제 일정과 상영작 등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영화제의 콘셉트인 '사이공간(In Between)' 은 사람, 사이, 공간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서울노인영화제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 상영 프로그램은 국내 경쟁부분 본선 진출작 36편과 해외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19편을 비롯해 도슨트 초이스, 국내특별장편, SISFF Coup De Coeur, SISFF 시선, Know-ing 섹션: 물결너머로부터, 특별섹션: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으로 구성했다. 10월 21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으로 엘리야 술라이만이 연출한 〈머스트 비 헤븐(It Must be heaven)〉을 상영한다.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 언택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소통으로 이어가는 것)' 를 추구하는 이번 영화제는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좌석 간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사전예매를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